

[2020-10] ○○○ 이의신청 요약 [’20.8.13. 결정]

■ 사실 관계

- 당초 신청인(○○○)은 농업회사법인 ○○○○○○의 발행주식 8,000주(40%) 보유
- 2000.00.00. 법인의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주식 85,600주 양수 → 93,600주(88.64%) 보유
 - ※ 법인이 ○○세무서장에게 작성·제출한 0000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근거
- 2000.00.00. 과점주주 소유주식 비율(88.64%)에 따라 취득세 부과
 - ※ 처분청 : ○○시장 / 과세표준 000,000,000원 / 취득세 000,000,000원(가산세포함)
- 2000.00.00. 신청인 이의신청 제기

■ 쟁점 사항

- 법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

■ 신청인 주장

- 신청인은 0000.00.00. 법인의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 양수로 서류상 과점주주가 되었으나, 이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편의상 양수함(명의수탁)
- 자본금 증자는 신청인이 단독 출자하여 증자한 것이 아니고, 또한 신청외 주주인 ●●●이 대표 이사라는 직책으로 영업과 대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, 신청인은 의결권이 없는 서류상의 과점주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

■ 우리도 의견 : 기각

- 이 사건 법인이 ○○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법인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00,000주(지분율 00.00%)을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,
- 이 사건 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대표이사는 신청인으로 2000.00.00. 등기되어 있고,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,
- 신청인이 이의신청서에 첨부한 “합의 및 동의서” 등의 증빙자료는 사인간 작성한 문서로 공증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, 이 사건 법인의 가수금 계정별 원장 또는 입금전표 등 명의수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,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과점주주가 아님을 법인의 가수금 계정별 원장 또는 입금전표 등으로 명의수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.